

IMF 체제의 노동운동

노동자·농민·빈민의 공동전선과 진보정당 건설을 제안한다

권영길

국민승리21 공동대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달러가 춤추고 있다. 지구를 둘면서 춤추고 있다. 달러가 춤추면 세계경제가 춤춘다. '미친 년 널뛰듯이'란 말의 널뛰듯이처럼 춤추고 있다. 누가 달러를 춤추게 하나. 국제금융자본가들이다. 말이 좋아 국제금융자본이지 실상 국제 투기 자본이다. 뉴욕 월가의 자본이다. 금융투자(투기)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돈 놓고 돈 먹기 아닌가. 곰이 제주를 부리면 돈은 누가 먹나. 곰을 부리는 자, 곰 주인이 먹는다. 달러가 (투기자본이) 춤추면...? 헌하다. 곰 주인이 돈을 벌려면 곰이 제주 부리도록 해야 하듯이 국제금융자본가들이 돈을 벌려면 달러를 굴려야 한다. 그래서 달러가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춤추고 있는 것이다.

국제금융자본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 모든 대륙에 펼친 식민 영토로 해지는 곳이 없었던 유니언 잭(영국 국기)처럼 해지는 곳 없이 지구촌을 휘젓는 월가의 달러다. 이 자본은 한 나라의 경제를 한 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폭력을 갖고 있다. 세계 경제는 괴력의 이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시대 — 국제금융자본의 시대다. 월가의 큰 손(wall streeter)들의 시대다. 세계를 둘고 있는 금융자본은 1조 달러를 훨씬 넘는다고 한다. 이 돈을 월가의 큰손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움직인다. 세계는 국

한국 노동운동은 허덕이고 있다. 우리 노동운동은 87년 대투쟁 이후 관성에 젖어 있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똑같은 형태의 투쟁으로 맞섰다.
그리기에 변화된 시대의 양상(권력과 자본의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수동적이고 힘겨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금융자본의 시대면서 정보화의 시대다. 손가락으로 컴퓨터 키 한번 누르는 순간 — 눈깜짝할 사이에 1조 달러의 돈이 유통되는 시대다. 정보화의 시대에 월가의 자본가들이 세계 각국의 경제구조와 흐름과 속사정 등 모든 정보를 훤히 파악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장악하고 있으면 지배자가 된다.

세계 최대의 채권국은 일본이며, 최대의 채무국은 미국이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3대 경제 대국이다. 최대의 채권국인 일본 경제를 최대의 채무국인 미국의 금융자본이 문제 있다고 평가하자, 일본은 분통을 터뜨리며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며 도전했지만 국제금융과 정보의 지배에 밀려 손을 들고 말았다. “루블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는 월가의 큰손 소로스의 말 한마디가 러시아 경제를 붕괴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오늘이다.

금융과 정보화 시대의 세계경제구조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파악할 능력도 없으면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떼를 써서 가입하고 스스로 개방경제체제에 편승했다. 정경유착과 재벌의 과잉중복투자가 만들어낸 ‘모래성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제가 국제금융의 구조를 모르는 채 IMF체제에 편입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노동운동은 허덕이고 있다. 우리 노동운동은 87년 대투쟁 이후 관성에 젖어 있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똑같은 형태의 투쟁으로 맞섰다. 그리기에 변화된 시대의 양상(권력과 자본의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수동적이고 힘겨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농민·빈민의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이 같은 연속선 위에서 IMF사태를 맞게 됐다. IMF시대에서 노동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전략과 전술 수립의 기초작업으로 현 상황을 면밀히 그리고 냉정히 재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의 한계를 깨닫는 솔직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힘의 한계가 있으므로 투쟁을 접하거나 적당히 하자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투쟁, 필승의 투쟁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노동진영의 힘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장기전의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다. 장기전을 위한 총체적인 전략, 전술을 개발하면서 대오를 재정비해야 한다. 대오정비의 하나가 기층 대중조직의 집결이다. 노동자·농민·빈민이 전선 조직으로 묶여 공동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IMF사태를 돌파하기 어렵다. 노동자·농민·빈민의 생활이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벌써 시작됐다. 민주노총·전농·전빈련의 연대 논의가 시급하다.

99년 4월까지 진보정당을 창당하자

이와 함께 진보정당이 결성돼야 한다. 진보정당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건설 시점이다. 진보정당의 성격, 구성내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장기간(1~2년) 펼 수 없는 시급한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 올 10월(아무리 늦더라도 11월)에 진보정당창당준비위를, 99년 4월(아무리 늦더라도 5월)에 진보정당을 창당하자는 게 나의 주장이다. 그러자면 집약적이며 효율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때문에 민주노총 내의 대중적인 토론이 시급하다. “한창 싸우고 있는 판에 무슨 진보정당 논의냐”는 이야기들이 또 나올게다. 하지만 앞에서 길게 설명했듯이 국제금융지배의 시대, IMF 체제 편입 시대의 노동운동의 대응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 진보정당 건설이 강력한 노동운동이다. 강한 투쟁이다. 왜 아무리 늦어도 5월에는 진보정당이 결성돼야 하나. 답은 간단하다. 2천년 총선참여를 위해서다. “총선에 참가하자고 진보정당 만들자는 것이냐.” “제도권 정당처럼 선거나 치루는게 노동자정치세력화냐.” “총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서 하는 주장이다.

2천년 총선 참여가 진보정당 결성의 목적이 아니다. 총선의 장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조건에서 총선 만큼 활용하기 좋은 무대는 없다. 더군다나 총선을 통해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몇 명의 의원을 진출시킨다면 노동운동이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필코 차기 국회에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국회내 교두보 확보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한 과정이며 방안중의 하나다.

그리고 진보정당 성격규정 논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진보정당이 펼쳐질 구체적인 정책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짚어보는 것이다. 관점이 다른 두 주장이 있다면 각각의 구체적인 규정, 정책이 얼마나 크게 다른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단없이 전진하자

만약 99년의 진보정당 결성 시한을 전제로 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동의되는 수준에서라도 진보정당은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가야 한다. 진보정당 건설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중단 없는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99년 말까지 IMF체제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 기간은 이전의 1년 반에서 2년으로 늘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보화 시대에 세계의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국제금융자본이 시장지상주의 경제를 주도하고 더 강화시킬 상황에서 한국노동운동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대회전의 한판이 가로놓여 있다. 다시 말하거나와 총체적인 전략 전술로 그 전선을 돌파할 수 있다. 모두가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을 만들기를 기원한다.